

소설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에 나타난 의상 연구

김현주* · 한지은** · 황나원** · 조량* · 김양희*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전공 조교수*

요약

고전 역사물 공연의상의 경우 재현에 충실해야하므로 작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복식사적 배경은 물론 고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소설 「레 미제라블」은 대중들의 관심이 큰 작품이며 흥미 있는 연구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연구는 미비한 편이므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미 공연된 뮤지컬 및 영화 등의 무대의상을 자료로 하는 기존의 분석방법을 따르지 않고, 시대 및 복식배경의 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원작 분석에 중점을 두었으며, 「레 미제라블」에 표현된 등장인물의 특성과 의상표현을 분석하므로 고증자료는 물론 공연의상에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레 미제라블」 전 6권의 180부분에서 발췌된 글 자료를 기초자료로 분석하였고 삽화 150여 점을 참고하였다. 첫째, 시대 및 복식배경에 대한 사적 고찰로 소설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둘째, 자료 발굴 및 분석 단계에서는 소설의 전반적인 구성 및 줄거리를 파악한 후, 주요 등장인물의 연령, 성별 및 각 인물의 신분이나 직업 등의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소설 속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성격 표현을 발췌하여 주요 등장인물의 특징을 분석한다. 또 주요 등장인물의 상황별 의상표현 분석에 의한 전체적인 의상형태 및 분위기 특징을 파악한다. 셋째, 분석 및 종합 단계에서는 등장인물의 특징, 의상표현 분석으로부터 주요 등장인물의 의상 이미지 컨셉을 도출하고, 상황별로 등장하는 의상의 아이템, 색채, 소재, 액세서리 등을 분석하고 종합한다. 발췌문 180부분의 분석을 통해 주요 등장인물 6인의 연령, 성별 및 사회·문화적인 배경, 성격 특징과 각 인물의 상황별 의상표현이 파악되었다. 등장인물의 이미지 컨셉 및 의상 분석 및 종합 결과, 소설의 세밀한 의상표현을 통해 시대 기본 유형을 따르고 있지만 상황에 따른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복식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주제어: 레 미제라블, 장발장, 꼬제뜨, 무대의상, 낭만주의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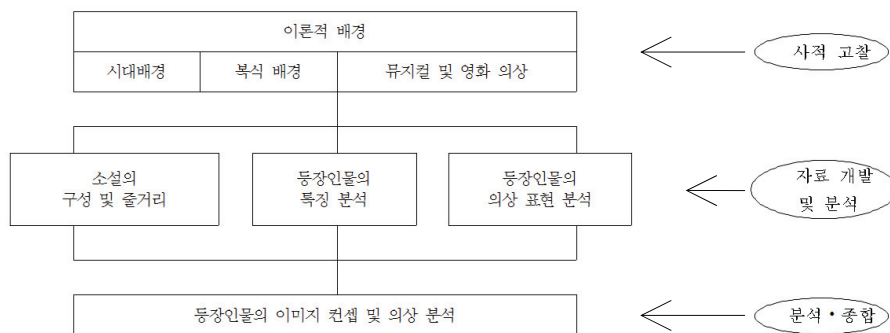
고전 역사물 공연의상의 경우 재현에 충실해야 하므로 작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복식사적 배경은 물론 고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 오페라나 뮤지컬을 위한 무대미술이 사실주의적 연출에서 현대적이고 실험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소하고 기능적으로 효과적인 구성의 무대배경과 어울리도록 의상 역시 다양한 재료와 구성으로 단순하고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야 할 특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고전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필수적이다. 특히 원작의 분석결과로부터 글 고중 자료 개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이어지는 연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인문사회 기초자료 구축과 기초, 심화 연구의 토대 마련으로 지식 축적에 이르게 하는 국가연구지원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주제이며, 국내 공연예술 산업과 대중적 문화역량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설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은 1980년 프랑스에서 뮤지컬로 초연되어 전 세계 42개 나라에서 21개 언어로 43,000회 이상 30년간 장기 공연되었으며¹⁾, 20세기 초부터 1998년까지 지속적으로 영

화로 제작되기도 한 대중들의 관심이 큰 작품이며 흥미 있는 연구주제이다. 높은 지명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연구는 미비한 편이며, 특히 국립중앙도서관 학위논문과 학회 논문 검색을 통해서 『레 미제라블』에 나타난 의상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었으므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 본 연구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미 공연된 뮤지컬 및 영화 등의 무대인상을 자료로 하는 기존의 분석방법을 따르지 않고, 시대 및 복식배경의 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원작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레 미제라블』에 표현된 등장인물의 특성과 의상표현을 분석하므로 고중이나 공연의상의 컨셉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레 미제라블』 전 6권의 180부분에서 발췌된 글 자료를 기초자료로 분석하였고 삽화 150여 점을 참고하였으며, 연구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적 고찰 단계로 배경이 되는 시대상황을 고찰하여 소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행연구 및 그림 자료에 의한 19세기 초 서양복식에 대한 고찰과 기존에 발표되었던 뮤지컬 및 영화 『레 미제라블』에 표현된 의상특징의 파악을 통해 『레 미제라블』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복식의 배경을 살펴본다. 둘째, 자료 발굴 및 분석 단계에서는 소설의 구성 및 줄거리를 알아 소설의 전반적인 내용



<그림 1> 연구 구성도

을 파악한 후, 주요 등장인물의 연령, 성별 및 각 인물의 신분이나 직업 등의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소설 속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성격 표현을 발췌하여 주요 등장인물의 특징을 분석한다. 또 주요 등장인물의 상황별 의상표현 분석에 의한 전체적인 의상형태 및 분위기 특징을 파악한다. 셋째, 분석 및 종합 단계로 등장인물의 특징, 의상표현 분석으로부터 주요 등장인물의 의상 이미지 컨셉을 도출하고, 상황별로 등장하는 의상의 아이템, 색채, 소재, 액세서리 등을 분석하고 종합한다.

완역본 전 권의 의상에 관한 기록을 발췌 분석한 후, 용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원작에서 붙여 표기를 다시 발췌하고 대조하였다.²⁾³⁾⁴⁾⁵⁾⁶⁾⁷⁾⁸⁾⁹⁾¹⁰⁾¹¹⁾¹²⁾

II. 이론적 배경

1. 시대배경

소설 「레 미제라블」이 시작되는 1815년부터 장발장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1832년은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 정권이 몰려서고 왕정과 공화정이 번복되는 정치적 혼돈의 시대였다. 산업 혁명 이후 부르주아 계급은 급성장하여 부를 쌓아나가기만 농민과 노동자는 귀족과 부르주아의 도덕성이 결여된 상업적 투기와 혁명 이후 얻어낸 그들에게만 유리한 정치적 재정 독점 하에 노동 및 생활조건은 악화되고 극한 빈곤을 겪었던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대였다.¹³⁾ 프랑스의 부르주아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기존의 앙시앙 레짐(Ancien Régime)으로 부터 막대한 돈과 권력을 바탕으로 부르주아에게 유리한 사회를 이끌어 냈고 1830년 7월 혁명을 통해 이를 확고히 했다.¹⁴⁾ 하지만 농민 계급은 지속적으로 비참한 삶을 영위했는데, 그 이유는 질 나쁜 작물과 빈약한 농업기술로 인해 농업 생

산량은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농업 혁명도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늦었기 때문이다. 돈이 될 만한 채소나 가축의 재배는 도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이 부분의 소비도 185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하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민은 거의 굶주릴 수밖에 없었고 극도로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¹⁵⁾

그러나 1789년 프랑스 정신혁명 이후 150년간 프랑스를 지배했던 고전주의는 19세기 초에는 신 고전주의를 지나 1830년 7월 혁명 무렵에는 낭만주의가 절정을 이루었고, 이후 19세기 후반을 지배하는 합리주의와 사실주의가 태동하는 등 이 시기는 문화적으로는 찬란한 꽃을 피운 시기이기도 하다.

2. 「레 미제라블」의 일반적인 복식 배경

시대극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당시 복식사적 고찰이 충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레 미제라블」의 시대 배경은 앞서 설명한대로 1815년에서 1840년 사이이며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복식사적으로 낭만주의가 팽배했던 로맨틱 스타일 시대로 이전의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심플하고 고전적이었던 스타일에서 다시 사치스럽고 화려함을 되찾으려 하였다. 선행연구의 고찰과 그림 자료 보완을 통해 당시 일반적인 복식 배경을 알아보았다.

1) 여성 복식

브르봉 왕조의 복고로 프랑스 혁명 이전의 귀족 문화가 부활하고 사치스럽고 화려한 복식이 다시 유행하였다. 이 당시 여성복식의 기본적인 유형은 로브(robe)를 입고 가벼운 술을 걸치거나 외투인 르덴고뜨(redingote)를 입었다. 로브는 넥크라인을 넓히고 소매를 부풀려 어깨를 넓게 강조하고 허리를 잘록하게 조였으며 스커트는 풍성하게 부풀려 X자형 실루엣이 부활되었다.¹⁶⁾ 넥크라인이

나 소매, 스커트 단에 레이스나 리본, 주름장식을 더하여 귀족적이고 화려한 로맨틱 스타일을 표현하였다. 허리를 조이기 위해 코르셋이 다시 등장하고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해서 페티코트도 유행하게 되었다.

엠파이어 스타일이 아직 남아있던 1820년 초기인 <그림 2>의 로브는 허리선은 제 허리선 보다 높았지만 넥크라인이 점차 넓어지고 소매도 부풀려져서 X자형 실루엣으로 변하는 과도기적인 형태를 보인다. 소매와 스커트단의 리본장식은 로맨틱한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¹⁷⁾ <그림 3>은 1827년의 로브로 팔꿈치까지 풍성하게 내려오는 소매가 주목되며 스커트 단에는 자수 등으로 강조를 하였다.¹⁸⁾ <그림 2>와 <그림 3>의 허리선에 주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허리선에 맞는 삼각형에 가까운 스커트 패턴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브 드 쏘아레(robe de soirée)는 <그림 4>와 같이 넥크라인의 앞 중심에서 어깨로 뻗어나가는 사선으로 주름을 넣었고 소매 윗부분에는 여러 개의 리본으로 장식하여 어깨를 더욱 넓게 강조하였고 소매는 손목까지 풍성하게 하였다.¹⁹⁾ 앞 중심이 뾰족한 허리라인이 등장하고 스커트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허리선에서 많은 주름을 잡았다. 노출된 어깨를 가리기 위해 어깨에 뽀르린느(pèlerine)를 착용하였는데 린넨이나 레이스로 만들어 드레스 허리에서 고정하였다.²⁰⁾ <그림 5>의 맨 왼쪽 여성은 무

릎까지 내려오는 뽀르린느를 착용하였고 가운데 여성은 테일러드 칼라처럼 뒤집어지는 칼라가 있는 넥크라인의 드레스를 입었는데 어깨를 넓게 보이기 위한 넥크라인 디테일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¹⁾ 넓어지는 어깨와 스커트 단에 경쟁이라도 하듯이 모자의 챙도 넓어져 갔으며 리본이나 꽃 장식을 하여 그 화려함을 더 했다. 여성복에 사용된 직물은 이전의 시대에 비해 밝아졌으며 보비네뜨(bobinette)의 발명으로²²⁾ 레이스 생산이 급증하여 여성복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꽃, 체크 등의 무늬가 들어간 원단도 많이 사용되었다<그림 6>.²³⁾

2) 남성 복식

19세기 초 프랑스 남성 복식은 ‘댄다이즘(dandism)’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데, 과거에 비해 단정하며 세련된 현대의 남성복과 비슷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로맨틱 시대 남성복의 기본 유형은 셔츠의 개념인 슈미즈(chemise)를 입고, 상의로 질레(gilet)나 블루즈(blouse), 베스트(veste)를 입었으며 그 위에 프락(frac)이나 프록 코트(frock coat)를 입었다. 하의는 꺄로뜨(culotte)나 뽕팔롱(pantal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투로는 망토 형의 소매가 없는 까프(cape)나 르탱고뜨(redingote)를 입고, 뽕뽕하게 세워진 슈미즈의 칼라에 크라바뜨(cravate)을 둘렀다.

슈미즈는 가장 안에 입는 상의로 칼라가 있고 앞 중심에 가로로 주름이 잡힌 러플이 있었다. 칼



<그림 2>
1823년 드레스
(출처: 『The Cut of Women's Clothes』, 1968, p.149)



<그림 3>
1827년 드레스
(출처: 『The Cut of Women's Clothes』, 1968, p.150)



<그림 4>
로브 드 쏘아레
(출처: 『서양의 복식 문화와 역사』, 2008, p.286)



<그림 5>
뽀르린느와 칼라
(출처: 『복식의 역사』, 1965, p.576)



<그림 6>
체크 원단 로브
(출처: 『서양의 복식 문화와 역사』, 2008, p.288)

라는 양 볼에 닿을 정도로 뺏뺏하게 세워져 있었고 소매의 커프스는 코트 길으로 나올 만큼 넓었는데 이 두 가지는 당시 멋쟁이의 기본이기도 하였다. 세워진 칼라에 크라바트를 둘렀는데 그 여미는 방법은 다양하였다. 화려한 색상이나 무늬가 있는 면이나 린넨, 실크 등으로 만들어 졌는데 풀을 먹이거나 버크램(buckram)이나 고래뼈, 말털 등을 이용하여 뺏뺏하게 하였다.²⁴⁾ 슈미즈 위에 조끼 개념인 질레를 입었는데 길이는 허리선이고 앞여밈이 있다. 비교적 단색이었던 코트나 하의에 비해 밝은 색상이나 화려한 무늬의 원단으로 만들어져서 남성복에 강조를 주는 역할을 하였고<그림 7>²⁵⁾, 두 개의 질레를 겹쳐 입기도 하였다<그림 8>²⁶⁾ 1820년 즈음까지는 프락의 유행이 프록 코트보다 우세하였다. 프락은 앞의 밑단이 사람의 허리선 보다 약간 높았고 밑단이 앞에서 뒤로 가면서 곡선을 그리며 내려오게 하여 내려갈수록 폭이 좁아져 일반적인 복식사에서는 테일 코트(tail-coat)라고도 명명하였는데, 현대 연미복의 이미지와 비슷하다<그림 9>²⁷⁾ 1820년이 지나면서 영국의 영향으로 프랑스의 프락과 유사한²⁸⁾ 프록 코트의 유행이 우세하게 되었는데, 프록 코트의 앞단이 프락과는 다르게 밑단까지 일자로 내려왔다. 싱글 혹은 더블 브레스트였고 칼라가 있고 라펠이 있었다. <그림 10>은 1837년 이탈리아 작품이지만 참고할 만한

그림으로, 비슷해 보이는 계급의 남성이 여러 명 등장하고 모두 무릎길이며 라펠과 칼라가 달린 프록 코트를 입고 있다.²⁹⁾ 당시의 여성복과 마찬가지로 어깨가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 소매는 약간 부풀려 있었고 허리선은 몸에 밀착되도록 입었으며 일부러 작게 만들어 여미지 않게 하여 안에 화려한 질레나 크라바트가 보이게 입기도 하였다. 프락이나 프록 코트는 보통 무늬가 없는 어두운 색의 모직물이었다. 프락이나 프록 코트는 연미복 개념으로 상류 계층이나 부르주아가 입는 공식적인 의복이라면, 블루즈나 베스트는 일반인이 작업복으로 입는 상의였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블루즈는 농공업 종사자들의 작업복 상의를 말하며³⁰⁾, 베스트는 19세기에 짧은 상의를 통칭하기도 하고, 작업 시 착용하는 간단한 상의를 지칭하기도 하였다고 한다.³¹⁾ 1820년 이후부터 무릎길이의 타이트한 하의인 켈로뜨<그림 9>는 궁중에서만 입었으며 대신 발끝까지 일자로 내려오는 뺑뺑이를 대중적으로 입었다<그림 10>. 하의는 보통 단색의 흰색이나 검은색이었고 타이트하기 때문에 편직물이나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하기도 하였다.³²⁾ 추운 날씨에 입는 외투는 카프과 르덴고뜨가 있다. 르덴고뜨는 프록 코트와 비슷한 실루엣이지만 그 길이가 프록 코트보다 길었고, 칼라나 라펠이 넓었으며 벨벳 등의 다른 직물로 만들었다<그림 11>.³³⁾



<그림 7>
질레와 크라바트
(출처: 'Des Modes Et Des Hommes', 1993, p.38)



<그림 8>
겹쳐 입은 질레
(출처: 'Des Modes Et Des Hommes', 1993, p.47)



<그림 9>
프락
(출처: 'Costumes et Modes', 1818, pl. V)



<그림 10>
프록 코트
(출처: 'Des Modes Et Des Hommes', 1993, p.28)



<그림 11>
르덴고뜨
(출처: '서양의 복식문화와 역사', 2008, p.305)



<그림 12> 런던 『레 미제라블』 공연
(출처: 『Les Misérables(DVD)』, 2008)



<그림 13> 영화 속
장발장 (출처: 『Les
Misérables(DVD)』,
1998)



<그림 14> 영화 속
꼬제트 (출처: 『Les
Misérables(DVD)』, 1998)



<그림 15> 영화 속
마리우스 (출처: 『Les
Misérables(DVD)』, 1998)

3. 뮤지컬 및 영화에 표현된 의상특징

1980년 프랑스에서 처음 공연된 뮤지컬 『레 미제라블』은 현재 영국의 웨스트 앤드, 미국의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전 세계 42개 나라에서 21개 언어로 43,000회 이상의 공연을 한 역사적인 뮤지컬이다. 1980년 9월 파리의 팔레 데 스포츠(Palais des Sports)에서 프랑스어로 초연된 뮤지컬은 알랭 부르릴(Alain Boublil)이 극본을 쓰고 클로드-미셸 웬버그(Claude-Michel Schönberg)가 작곡을 한 작품으로 당시 100회의 짧은 공연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로열 셰익스피어 극단의 카메론 매킨토시(Cameron Mackintosh)가 제작한 『레 미제라블』은 영국 런던에서 1985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6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 런던 공연의 의상 제작자는 안드레안 네오피토우(Andreane Neofitou)로 『레 미제라블』 뿐만 아니라 『미스사이공』, 『피터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 다수의 무대의상을 제작하였고 무대의상으로 토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레 미제라블』 속의 많은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무대 의상이 무대에 오르는데 각 공연에서 1,782개의 아이টে으로 구성된 392벌의 무대 의상을 사용하며 31개의 가발도 사용하였다고 한다.³⁴⁾ 앞에서 설명한 1820~40년의 로맨틱 스타일의 남·녀 복식 유행을 기본으로 하되 무대의상은 다소 간소화 되어 있거나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하

는 경향이 있다. 뮤지컬에서는 부자나 공작자 등의 부유한 인물이 많지 않아서 많은 인물들의 의상은 그만큼 간소화 되어있거나 찢어지는 등 의상을 낡게 표현하고 있다. 많은 남자 배우들은 프록 코트를 입지 않고 허름하게 해진 질레와 슈미즈, 크라바뜨, 빵딸롱을 입고 나오고 여자 배우는 속 옷인 코르셋이 겹으로 나오게 입거나 치마가 짧거나 넥크라인이 많이 파져 있고 많이 해져 있었다. 시대상을 기본으로 하되 극적인 분위기를 잘 표현한 무대의상이라고 사료된다<그림 12>.³⁵⁾

방대한 내용의 원작을 소재와 주제 의식을 그대로 3시간의 뮤지컬로 표현했다면 1998년 할리우드에서 빌 오거스트(Bille August)감독에 의해 제작된 영화 『레 미제라블』은 내용이 다소 변경되거나 축소되었다. 이 영화의 의상은 『순수의 시대』, 『주홍글씨』 등의 의상을 담당한 가브리엘라 페스쿠치(Gabriella Pescucci)가 담당하였다. <그림 13>은 상마띠외의 재판에서 자신이 진짜 장발장이라고 밝히는 장면에서 장발장의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검정색을 입었으며 하의로 판탈롱을 입고 슈미즈와 질레를 입었으며 프락을 입고 있다.³⁶⁾ <그림 14>는 영화 속의 꼬제트의 모습이다. 당시 유행한 체크무늬 원단의 소매가 전체적으로 풍성한 로브에 벨리넨스를 두른 전형적인 로맨틱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³⁷⁾ 마리우스는 채도가 낮은 갈색 톤의 프록 코트와 질레를 입고 빵딸롱을 입고 입었으며

크라바트를 두르고 있는 모습 역시 로맨틱 스타일 시대의 남성복을 적절히 표현했다<그림 15>.³⁸⁾ 이와 같이 사실성이 중요시되는 시대 고증적인 영화에서는 뮤지컬의 의상보다는 과장되지 않았으며 보다 복식사적인 사실에 가까운 의상 표현에 충실하고 있다.

III. 등장인물의 특징 및 의상 분석 소설 「레 미제라블」의 구성 및 줄거리

소설 「레 미제라블」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문학가인 빅토르 위고(Victor Hugo)가 1862년

에 발표한 장발장(Jean Valjean)이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그린 장편소설이다. 19세기 초 프랑스에서 프랑수아 비도크(Eugène François Vidocq)라는 인물이 도둑에서 파리의 형사과장으로 출세한 실존 사례가 있는데 그가 바로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인 장발장의 모델로 전해져 있다. 소설의 제목인 「레 미제라블」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어로, 프랑스 시민혁명을 배경으로 당시 프랑스 민중들의 비참한 삶을 표현하고, 진실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빅토르 위고는 장군출신인 아버지의 바람에 따라 법학을 배우지만 문학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시집과 희곡을 발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표 1> 소설 「레 미제라블」의 구성 및 줄거리

권	제목	줄거리	쪽
1	종달새 쑈제뜨	주인공 장발장은 빵 한 개를 훔친 죄로 19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출옥한다. 장발장은 미리엘(Myriel) 주교의 배려로 바르게 살 것을 다짐한다. 장발장은 ‘마들렌느(Madeleine)’로 이름을 바꾸어 몽트뢰유 쉬르메르(Montreuil-sur-Mer)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그 지역의 시장이 된다. 미혼모 팡띤느는 자신의 딸인 쑈제뜨(Cosette)를 여관 주인인 떼나르디에(Thénardières)에게 맡기고 장발장의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팡띤느(Fantine)는 미혼모임이 발각되어 공장에서 쫓겨나고 떼나르디에의 금전 요구에 매춘을 하게 된다. 매춘을 하다가 자베르(Javert)에게 잡힌 팡띤느를 장발장이 구해준다. 자베르는 장발장을 의심하나 엉뚱한 사람이 장발장으로 잡혀온다.	12~424
2	팡띤느의 슬픔	장발장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자베르에게 쫓기게 된다. 팡띤느는 장발장이 연행되는 것에 충격을 받아 사망한다. 팡띤느의 딸을 구하기 위해 장발장은 탈옥한다. 장발장은 쑈제뜨를 구하고 수녀원에 숨어살게 된다.	425~840
3	위털루 전쟁	위털루 전쟁 중에 떼나르디에는 도둑질을 하다가 마리우스(Marius)의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의 평생의 은인이 된다. 마리우스는 ABC 결사단에 몸을 담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 마리우스는 쑈제뜨를 보고 반하고 이 둘은 사랑에 빠진다.	841~1256
4	장발장	마리우스는 떼나르디에의 정체를 알게 된다. 장발장은 마리우스와 쑈제뜨의 사랑에 질투를 한다.	1257~1672
5	혁명 바리케이트 도둑	마리우스는 혁명의 선두에 나선다. 장발장은 혁명단원들에게 죽임을 당하려는 자베르를 구한다. 장발장은 혁명 중 다친 마리우스를 구해준다. 자베르는 장발장을 붙잡았으나 풀어준다.	1673~2080
6	사랑 죽음 영혼	자베르는 자살한다. 마리우스와 쑈제뜨의 결혼을 앞두고 장발장은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마리우스는 장발장을 의심하면서 그를 멀리한다. 떼나르디에는 마리우스에게 사기를 치려는 과정에서 장발장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어 반성한다. 장발장은 쑈제뜨와 마리우스 앞에서 사망한다.	2081~2305

젊은 시절에는 왕당파였으나 여러 번의 정치적인 변모 끝에 결국 공화파가 되는데, 방대한 문학 활동을 하면서도 정치의 자유를 주장하고 국민들의 복지와 평등에 노력하며 평생을 보낸 그는 기본적으로 휴머니즘적인 성향을 소설 속에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³⁹⁾ 소설 「레 미제라블」은 1815년~1832년 프랑스를 배경으로 전 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표 1>과 같은 구성 및 줄거리를 지니고 있으며 소설의 전개는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가변적으로 사건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2. 등장인물의 특징 분석

등장인물의 연령, 성별 및 사회·문화적인 배경은 의상의 컨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성격에 대한 분석도 의상을 분석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인물의 직업이나 신분은 그 당시 복식사적인 배경을 참고할 수 있으며 반면에 인물의 성격은 그 인물이 입는 의상의 색상과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소설 「레 미제라블」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로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작가가 직접 서술을 하거나 등장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였다. 소설의 내용 분석을 통해 각 인물의 신분이나 직업 등을 알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연령, 성별을 도출하고, 소설 속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성격 표현을 발췌하여 주요 등장인물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주인공 장발장은 감옥에서 석방되고 10년 후 이름을 마들렌느로 바꿔 공장의 사장을 지내다가 시장이 되지만, 전과자 신분이 알려지면서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된다. 꼬제뜨와 함께 파리로 가서 과거에 목숨을 구해준 노인이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 포슐르방(Fauchlevent)이 되고 후에는 르블랑(Leblanc)이 되기도 한다.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했던 만큼 사용된 이름도 그만큼 많다. 장발장의 신분은 소설 내내 여러 번 바뀌게 되므로 장발장이 처한 각각의 상황별로 분석해야 한다. 표에 열거된 것과 같이 그는 인정이 많고 친절하며 선량하다고 표현되어 있다. 이는 작가가 직접 서술하기도 하였지만 소설 속에 등장하는 시민들의 대화에

<표 2> 등장인물의 특징 분석표

등장인물	사회·문화적 배경	연령	성별	성격표현	쪽
장발장	감옥 수감자, 공장 사장, 시장, 수도원 정원사,	중년	남자	인정 많음, 친절함, 선량함, 겸손함, 준엄함, 침착함	148, 284, 480, 885, 1418
팡띤느	여직공, 매춘부, 꼬제뜨의 어머니,	중년	여자	감수성이 예민함, 암전함, 정숙함, 모성애가 강함, 강인한 용기	237, 259
자베르	경감(공직자)	중년	남자	청빈함, 정직함, 냉철함, 고집스러움, 엄격함, 냉정함, 권위에 복종함	294, 345, 487
마리우스	부르주아 출신, 공화당원, 변호사, 남작	청년	남자	고상함, 너그러움, 신중함, 진실함, 온화함, 친절함, 자신만만함, 깨끗함, 정력적임, 용감함	1009, 1100, 1118
꼬제뜨	팡띤느의 딸, 어린이~젊은 여성	어린이~청년	여자	수줍음을 잘 탐, 천진난만함, 어른 같은 어린이애, 솔직함, 투명함, 깨끗함, 대담함, 야성적임, 용감한 성질	1416, 1429, 1474, 1604
떼나르디에	여관 주인, 에뽀닌(Eponine)과 가부로슈(Gavroch)의 아버지	중년	남자	교활함, 위선적임, 탐욕스러움, 음탕함, 간계에 능함, 침착함, 악당치고는 온순함	268, 609~611, 685

도 표현이 되기도 한다. “저 사람은 부자인데도 거만하지 않고 행복한데도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⁴⁰⁾를 통해 장발장은 거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지 않는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힘들었던 과거와 늘 신분을 숨겨야 했던 그의 일생을 더불어 생각해 볼 때 장발장은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 있었으나 자기 자신에게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장발장은 과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선량하며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겸손한 생활을 하는 인물이다.

팡띤느는 꼬제뜨의 어머니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모성애가 강한 여성이다. 돈 때문에 사랑하는 딸 꼬제뜨를 페나르디에 부부에게 맡기고 장발장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보내준다. 그러다가 딸이 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공장에서 쫓겨나게 된다. 페나르디에가 꼬제뜨를 핑계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하여 몸을 상하게 하면서도 돈을 벌지만 결국에는 폐병으로 죽게 된다. 돈을 벌기 위해 매춘을 해야 했지만 암전하고 정숙하다고 표현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강한 용기를 가지고 있다고도 표현되어 있다.

자베르는 장발장을 끈질기게 쫓아가며 괴롭히는 인물이지만 악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인물이다. 본문 중에 “경찰에 몸담은 관리들은 흔히 권위의 표정과 야비한 표정이 뒤섞인 그 어떤 복잡하고도 특별한 인상을 지니고 있는 법이다. 자베르도 그런 인상이었으나 야비한 데는 없었다”⁴¹⁾를 보면 본인이 가진 권위를 내세우지만 그 당시 경찰이라 하면 가지고 있었을 야비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권위에 복종하며 원칙을 중요시 생각함을 알 수 있고 엄격하며 무섭도록 정직하다고도 표현하고 있다. 냉철하고 고집스러우며 엄격한 그에 대한 표현은 장발장을 끝까지 쫓아가는 역의 성격으로 알맞았다고 사료된다. “……게다가 청빈하고 고독하고 극기하고 정결한 생활을 하면서 오

락은 전혀 즐기지 않았다. 그는 엄격한 의무 그 자체이며 스파르타 인이 스파르타에 몸을 바치듯 강직하고 씩씩한 경찰관이며, 무자비한 감시자이며, 무섭도록 정직하고, 냉혹한 밀정이며, 명탐정 비도끄 속에 살아있는 부르티스였다”⁴²⁾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로서 가져야 할 성격을 지나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빈하고 고독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꼬제뜨의 연인이자 바리게이트 사건의 핵심인 물인 마리우스는 부르주아 출신이면서 변호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 너그럽고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으며 “돈을 꿀 정도면 차라리 먹지도 않았다. 그래서 실제 며칠씩 굶은 적도 있었다”⁴³⁾의 내용을 보면 자존심이 강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혁명을 이끌어 나갈 만큼 열정적이고 곳곳하며 용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꼬제뜨는 아주 어린 시절 페나르디에 부부의 여관에 맡겨져 학대를 받으면서 살다가 장발장과 함께 파리로 가게 된다. 수도원에서 지내게 되면서 서원수녀 기숙사생으로 지내다가 장발장과 함께 수도원을 나온다. 수도원을 나와 마리우스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어린 나이부터 학대를 받아온 힘들었던 과거 때문에 또래보다 어른같이 행동하는데 소설에서는 “수줍음을 잘 타지만 어른 같은 어린애”⁴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천진난만하고 솔직하고 깨끗하고 투명하지만 마리우스와의 연인 관계를 통해서 용감하면서도 대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여관 주인인 페나르디에는 소설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악역이다. 위터루 참전 중사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지만 거짓으로 치장된 과거가 있다. 유식한 척 하지만 무식하며 교활하고 음탕하고 탐욕스럽고 게으르다. 본문 중 “페나르디에는 교활하고 탐욕스럽고 게으르고 피가 많았다. …무엇보다도 간계에 능한 침착한 사나이로, 악당치고는 온순한 편이었다. …거기에 위선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⁴⁵⁾를 보면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위선적으로 행동하면서 이중인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3. 등장인물별 의상표현 분석

「레 미제라블」 전 6권을 통해서 77명의 등장인물과 다수의 행인 및 죄수, 처녀들로 묘사되는 군중들이 등장한다. 이 중 의복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인물별로 구분하고, 인물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 의상표현을 종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인물 6인을 상황별로 분석한 내용을 다루었다.

송면 역의 「레 미제라블」에서 나타난 아이템의 명칭을 붙여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한 결과 용어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송면 역의 「레 미제라블」에서 나타난 프록 코트는 원문에서 르덴고트(redingote)로 표기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바지라고 표기된 것은 주로 긴 바지인 뽕팔롱(pantalon)으로 나타났으며, 반바지인 펄로뜨(culotte)는 장발장이 도망칠 때와 마리우스의 결혼예복에서 나타났다. 작업복은 블루즈(blouse)로 표기 되었으며, 드레스는 로브로 표기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음 <표 3> 등장인물의 의상표현 분석은 원본의 표기에 따른다.

1) 장발장

소설 「레 미제라블」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장발장은 다른 인물들에 비해 상황과 신분이 급격하게 여러 번 뒤바뀌며 등장한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옥 직후와 성공한 부르주아인 마들렌느 시장 시절, 자베르에게 쫓기는 도망자 시절, 마지막으로 꼬제뜨와 함께 자선사업을 하는 르블랑 노인시절로 4가지 상황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출옥 직후, 마을을 떠돌아다니는 부랑자 모습의 묘사는 셔츠의 목 부분을 은빛 핀으로 고정하여 착용하고, 하의로는 푸른 줄이 나 있는 무

명 바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배배 꼬여 겨우 형태만 드러나는 넥타이를 매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넥타이가 신분이나 부에 상관없이 남성들의 기본 착의 아이템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⁴⁶⁾ 그리고 주머니 달린 배낭을 메고 구두를 신고 지팡이를 들고 다녔다는 대목이 등장한다.⁴⁷⁾ <그림 16>의 삽화를 통해 관찰해보면, 이를 더욱 잘 확인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장발장이 사업에 성공하여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부르주아 계급에 속하게 된 후에 시장 직을 맡고 있는 시절이다. <표 2>의 성격표현 부분에서 말하였듯이 마들렌시장의 검소한 성격은 옷차림에 그대로 투영되었으며, 소재는 무명이나 나사와 같은 것들이었다. 그의 의복묘사에 대한 문장을 보면 한 걸 같이 상의로는 깃 달린 셔츠를 입고 부랑자 시절에는 묘사되지 않았던 조끼를 입었는데 주머니가 달려있다고 서술되어있다. 그리고 기본 아이템중 하나인 넥타이를 매고 이 위에 값싼 모직으로 된 긴 프록 코트를 턱 밑까지 단추를 채워 입고 모자를 써 기본 아이템으로 충실하게 입고 있다고 설명한다.⁴⁸⁾⁴⁹⁾ <그림 17>의 삽화를 통해 보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종아리 밑까지 내려오는 긴 프록 코트를 단정히 입고 셔츠의 깃을 세워 착용하였으며 나비넥타이를 착용한 것 또한 알 수 있다. 프록 코트는 허리부분이 거의 조여지지 않은 스트레이트 핏으로 <그림 18>에서의 장년의 자베르 삽화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19>에서의 청년층의 마리우스는 허리가 다소 조여지고 전체적으로 슬림한 라인의 외의를 착용하는 것으로 보아 나이에 따라 선호하는 코트의 실루엣이 따로 있고, 아무래도 젊은 층이 유행에 민감하고 몸매가 날씬하여 보다 슬림한 라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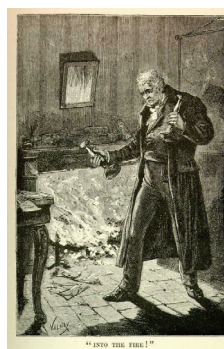
이후에 꼬제뜨를 페나르디에 내외에게서 구하러 갈 때, 장발장은 행색에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윤두가 높은 둥근 모자를 쓰고 두툼한 나사

<표 3> 등장인물의 상황별 의상표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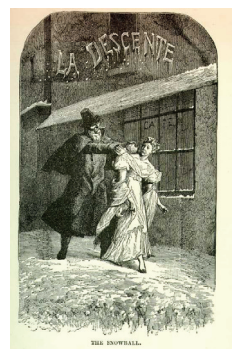
인물	상황	쪽	의상표현
장발장	출옥 직후 부랑자	107, 174	까스켓뜨(casquette)라는 흔히 말하는 뉴스보이캡을 쓰고 슈미즈(chemise)와 작업복 블루즈(blouse), 배배꼬인 크라바뜨(cravate)를 착용하고 무명 바지(pantalon)에 군인용 배낭(sac de soldat)을 착용한 허름한 차림새로 여기저기에서 얻어 입은 것 같은 모습으로 표현됨.
	검소한 부르주아 마들렌	281, 311, 430, 453, 477	슈미즈와 조끼(gilet)를 입고 크라바뜨를 착용한 모습과 항상 챙 넓은 모자를 쓰고, 값싼 모직물 르덴고뜨(redingote)의 단추를 턱 밑까지 단정하게 채워 입은 검소한 모습으로 등장함.
	도망자	643, 647, 711~719, 744	도망자 생활 중 꼬제뜨를 데리러 간 장발장의 모습은 망명지에서 갓 돌아온 문벌 좋은 집안의 가정교사라고 하면 좋을 그런 차림새로 낡은 모자와 주황색 나사 르덴고뜨, 질레, 반바지(culotte), 크라바뜨, 구두(soulier)를 착용한 단정하지만 허름한 모습으로 묘사됨.
	르블랑 노인	1135, 1222	깔끔한 홀아비의 모습으로 보이는 자선사업가 르블랑 노인을 표현함. 푸른 뺨뺨롱, 푸른 르덴고뜨, 챙 넓은 모자, 검은 크라바뜨에 새하얀지만 거친, 마치 케이크 교도가 입은 것 같은 슈미즈를 착용하였고, 외투(par-dessus)를 착용했다는 언급도 있음.
팡띤느	아름다운 젊은 처녀	218~219	밀짚모자(chapeau de paille), 연보라 빛 얇은 비단 엔파이어 스타일의 로브(robe de barège), 스펜서 재킷(spencer en mousseline), 양말위에 X자로 묶여지는 적갈색 구두(petits souliers)를 착용한 로맨틱 초기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모습 묘사
	여직공	311, 317	자신의 좋은 것은 딸에게 양보하고 딸을 위해 헌신하는 가난하지만 모성애가 넘치는 허름한 모습의 어머니로 그려짐. 형짚모자(bonnet)와 무명으로 기운 코르셋, 뒤꿈치가 헤진 양말과 구두를 착용한 처량한 모습으로 묘사됨.
	매춘부	321~322	가슴이 깊게 파인 아외복(robe de bal)을 입고 머리에 꽃을 꽂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매춘부로서의 모습은 다른 상황일 때 비교하면 한껏 치장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베르	경감	294, 471~472, 726	딱딱하고 엄격한 이미지로 일관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챙 넓은 모자를 이마를 다 가리도록 눌러쓰고 두 손이 소매로 가려지는 긴 르덴고뜨를 입고 지팡이(canne)을 르덴고뜨 속에 감추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됨.
마리우스	부르주아	1036, 1038, 1040, 1141, 1142, 1239	비교적 좋은 옷차림의 부르주아 모습으로 모자(chapeau), 르덴고뜨(redingote de voyage)와 윗도리, 크라바뜨, 검정 뺨뺨롱, 구두, 장갑으로 나타난다. 작장 아이템에 큰 변화 없음.
	가난한 변호사 (공화당원)	1101, 1106, 1141, 1224, 1630	공화당원 역할에서도 작장 아이템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헤어진 모자, 팔꿈치가 떨어진 슈미즈, 무릎이 닳아 허영게 된 검은 뺨뺨롱, 크라바뜨, 목도리, 물이 들어오는 구두의 가난한 모습으로 표현됨.
	부르주아 (결혼예복)	2147	결혼 예복은 초 먹인 모자(chapeau ciré), 방울 단추가 달린 빨간 베스트(vest rouge), 초록빛 가죽 켈로뜨(culotte de peau verte), 장화(bottes), 금빛 완장의 전통적인 모양의 의상을 착용한 모습으로 묘사됨.
꼬제뜨	부유한 어린이	259, 310, 469	팡띤느가 신경을 써주던 시절의 꼬제뜨의 모습은 부유했을 것으로 짐작하는 가능하나 상세한 아이템은 등장하지 않고, 다만 모직 스커트, 하얀 베일, 비치는 양말이 등장하며, 팡띤느가 비단이며 리본, 레이스로 어린 꼬제뜨를 치장했을 때 썼다는 대목이 있음.
	장발장 양녀	682, 691, 2175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모두 검은색 일색으로 꾸미거나, 장발장의 검소함이 반영된 차림이나, 모자란 없이 모두 갖춘 모습으로 등장함. 두터운 비로드로 만들어진 소매 달린 짧은 볼레로(brassière), 로브, 주머니 달린 앞치마(tablier), 메리야스 속치마(jupon), 삼각으로 두르는 목도리(fichu), 털실로 짠 양말, 긴 양말, 어린이용 구두 등의 구색을 갖춘 모습으로 묘사됨.
	기숙생	1139	털모자(chapeau de peluche), 메리노 소재 원피스(robe de mérinos), 학생구두(soulier d'écolier) 차림의 단정한 기숙생의 모습으로 표현됨.
	부르주아 처녀	1139, 1144, 1216, 1233, 1424, 1427, 1428, 1483, 1491, 1604, 1627, 2118, 2129, 2160, 2290	흰모자(chapeau de crêpe blanc)를 쓰고 로브(robe)를 입고, 겹에 망토(pelisse de satin noir)를 두르거나 케이프(camail)를 걸친 부르주아의 사치스런 모습으로 등장. 사치스럽다고 직접적인 표현을 쓸 정도로 꼬제뜨의 의복에는 레이스 로브, 실크 로브, 다 마스크 능직 로브 등 많은 로브가 등장하면 수놓은 것을 달았다는 등의 부연 설명 또한 많이 표현됨.
페나르 디에	여관주인	609	특별한 특징이 없이 작업복(blouse)와 뺨뺨롱의 모습으로 등장.
	강도 (전형적인 시인의 모습)	1259	전형적인 시인, 부랑자이자 강도로 돌변하는 모습으로 등장. 장발장이 준 누런색 르덴고뜨와 여성용 슈미즈, 뺨뺨롱으로 구색이 맞지 않는 느낌으로 묘사됨.
	사기꾼 (영국 상류사회 마부의 모습)	2261	마리우스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 나타난 영국 상류사회의 마부와 같은 모습이라고 표현됨. 모자(chapeau), 녹색 타프타 차양이 달린 안경, 안쪽 주머니에서 보이는 시계 줄, 크라바뜨, 윗도리(habit), 비단 질레, 캐시미어 뺨뺨롱을 착용하는 등 구색은 갖추었으나 단추가 떨어지고 사이즈가 맞지 않는 어색하고 허름한 모습으로 표현됨.

로 된 주황색 프록 코트를 걸쳐 기존의 복식에 비해 다소 화려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털실로 짠 검은 양말과 구리웁씨가 달린 두꺼운 가죽 구두를 신어 전체적으로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손질이 되어 있었다고 설명되어 있어 단정하고 검소하게 지냈음을 알 수 있으며, 옷의 가지 수가 많지 않으며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⁵⁰⁾ 꼬제뜨를 데리고 도망을 치던 장면에서 넥타이를 매고 조끼를 입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소설에서 언급되지 않으나 셔츠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다. 또 검은색 바지를 입고, 누런 프록 코트를 걸쳤으며, 모자를 쓰고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었다는 대목이 나온다.⁵¹⁾⁵²⁾⁵³⁾ 여기서 바지는 활동성이 좋은 빵팔롱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프록 코트의 소재도 앞과 마찬가지로 무명 또는 나사였을 것이다. 조끼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나 근거가 되는 삽화자료가 없어 참고하기 힘들다. 마들렌 시장일 때와 기본 의복 구성은 같지만 도망자 신세인데다가 주위의 시선을 고려하여 색상은 주로 어둡고 짙은 계열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꼬제뜨와 수도원에서 나와 르블랑 노인으로서 자선활동을 할 때에는 깔끔한 홀아비 느낌으로 하얀 셔츠에 검은 넥타이를 매고, 하의로 푸른색 바지를 입었다고 기술되었다. 이에 넓은 테가 달린 모자를 쓰고 푸른색 프록 코트를 걸쳤으며⁵⁴⁾ 때에 따라 갈색 외투를 덧입는 설정으로 마들렌 시장일 때의 복식과 비슷하지만 그 전에 쫓길 때에 비해 나이도 들었고 안정적인 상황이라 좀 더 유복한 느낌이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⁵⁵⁾ 하지만 혼자서 외출할 때는 좀 더 낡고 허름한 옷차림을 하는 것으로 보아, 꼬제뜨와 외출할 때는 젊고 사치스러운 꼬제뜨의 영향을 받아서 장발장도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구색을 갖추는 것으로 생각된다.⁵⁶⁾



<그림 16> 장발장
(출처: 『레 미제라블1.』
종달새 꼬제뜨, 2002,
p.389)



<그림 17> 팡띤느
(출처: 『레 미제라블1.』
종달새 꼬제뜨, 2002,
p.323)

2) 팡띤느

소설에서 묘사되는 팡띤느의 의복상황은 크게 3가지로, 젊고 아름다웠던 처녀 시절과 미혼모가 된 뒤 장발장의 공장에서 직공으로 일할 때, 마지막으로 매춘을 하였을 때로 나누어진다. 먼저 아름답고 젊은 처녀였을 시절의 팡띤느의 묘사를 보면 얇은 비단으로 된 연보랏빛 옷을 입고, 머슬린으로 된 짧은 코트를 걸쳤으며 발이 환히 비치는 얇은 소재의 흰색 양말을 신고 X자 리본이 달린 적갈색 구두를 신고 밀짚으로 된 모자를 써 청초한 아름다움을 뽐냈다고 설명한다.⁵⁷⁾ 후에 팡띤느가 직공으로 가난하게 살았을 때에도 낡아서 닳아 빠진 코르셋을 기워 입은 걸로 보아 코르셋은 당시 여성들의 기본 아이템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기에 이때에도 당연히 코르셋을 착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⁵⁸⁾ <그림 17>을 관찰해보면, 겉에 상의와 하의가 연결된 밝은 빛깔의 원피스 형 드레스를 입고 있고, 어깨와 연결된 소매는 부풀어져 있으며 하이웨이스트의 앰파이어 스타일로 보인다.

꼬제뜨를 떼나르디에 부부의 여관에 맡긴 팡띤느는 장발장의 공장에서 직공으로 일하게 되는데, 이 당시 떼나르디에 부부의 과한 금전요구로 인해 생활이 매우 곤궁해 지게 된다. 팡띤느의 모습에

서 이것을 여실히 살필 수 있다. 속옷을 입긴 했지만 헤어저도 제대로 기워 입지 못하고 닳아서 남아빠진 코르셋은 흰 무명으로 겨우 기워 입었고, 드레스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 되진 않았지만 젊은 시절 입었던 화려한 드레스는 다 팔아 꼬제뜨를 위해 사용하였고 본인은 무명옷을 걸쳤다고 하였으므로 이때에도 무명으로 만든 낡은 드레스를 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꼬제뜨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자를 머리를 감추기 위해 동그랗고 조그만 모자를 썼다.⁵⁹⁾⁽⁶⁰⁾⁽⁶¹⁾ 이 외에 자세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파악은 되지 않는다.

이후, 페나르디에의 금전요구를 건디다 못해 몸을 팔게 된 팡띤느에게는 단 한 벌의 야회복만이 남아 있었는데, 가슴이 깊게 파인 비단 드레스라고 설명되어 있다.⁶²⁾ 옷의 태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있던 낡은 코르셋과 패티코트를 착용하였을 것으로 유추되며 가난하기 때문에 새로운 드레스를 사기 보다는 처녀시절에 가지고 있는 드레스였을 것이며 소설에서도 단 한 벌 남아 있는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유행이 다소 지나있을 것이다.⁶³⁾ 이 외에 색상이나 소재에 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어 정확한 확인이 힘들지만 젊은 시절에 구입했던 밝은 빛깔의 비단드레스일 것으로 판단된다.

3) 자베르 경감

자베르 경감은 소설 시작부터 끝까지 엄격하고 냉정하여 직업의식이 충실한 인물로 의복도 일관성을 가지고 연출된다. 자베르 경감의 외관을 묘사한 부분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검은색의 긴 프록 코트를 턱 밑까지 단추를 채워 입고 둥근 모자를 썼다고 일괄적으로 3회 이상 서술되어 있다.⁶⁴⁾ 책에 나온 삽화를 <그림 18>을 통해 관찰해 보아도, 종아리 중간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긴 스트레이트 핏 프록 코트를 걸치고 긴 바지를 입고 있으며 운두가 높고 둥근 차양이 있는 모자를 쓰고 있어서

소설의 내용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단추를 턱 밑까지 채우고 있어 기본적인 상의와 하의는 관찰이 힘들고 소설에서도 따로 언급되지 않지만 그의 성격이 엄격하며 경감이었던 직업을 고려하면 단정하게 갖춰 입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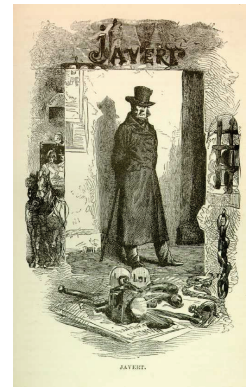
장발장과 마리우스를 비롯한 인물들이 프록

트 안에 셔츠와 조끼를 입고 넥타이를 매며, 바지를 입는 걸로 보아 자베르 경감 또한 같은 형식으로 입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직업 관계상 검은색과 회색 같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짙은 색상을 선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마리우스

「레 미제라블」 안에서 마리우스의 의복 묘사는 크게 3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가출하기 전 할아버지 질노르망(Gillenormand)의 양자로 철부지 도련님으로 살아가던 시기와 두 번째로 가출 후 가난한 변호사이자, 학생, 공화당원으로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꼬제뜨와의 결혼식 의상 모습이다. 하지만 마리우스가 가출하면서 몇 가지 옷을 여행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갔으므로⁶⁵⁾ 근본적으로는 같은 옷이고 생활이 궁핍하여 새로운 옷을 장만하지 못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마리우스의 의복 착장은 멋쟁이 부르주아, 공화당원, 결혼예복의 3종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실루엣에 대한 서면 묘사는 존재하지 않으나 여러 장의 삽화를 토대로 유추할 때 전반적인 마리우스의 모습은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고 발목이 좁게 짝 맞는 빵땔롱으로 슬림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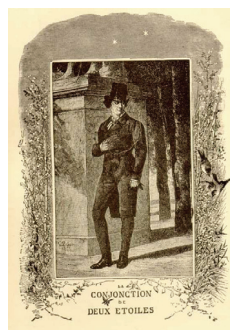
<그림 18> 자베르
(출처: 「레 미제라블」,
종달새 꼬제뜨, 2002,
p.291)

먼저 마리우스의 멋쟁이 부르주아의 모습인 호화로운 옷차림으로 나오는 부분의 책의 삽화<그림 19>를 보면 프록 코트가 아닌 프락을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 프록 코트와 프락이 혼재하였으며, 프락이 더 화려하고 멋쟁이들의 옷차림인 것을 짐작하게 한다. 마리우스가 프락을 입었다는 글 묘사는 없지만 삽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프락의 존재는 책 묘사 중 젊고 철없는 부르주아의 묘사에서 올리브 빛깔 연미복이라는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좀 얇은 올리브 빛깔 양복바지, 옆 솔기에는 몇 줄의 장식을 달았으며, 그 수는 하나에서 11개 사이로 일정하지는 않으나 늘 홀 수였다”⁶⁶⁾처럼 그 시대의 대표적인 멋쟁이에 대한 차림새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묘사가 서술되어있는데 마리우스 또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책에서 마리우스의 의복 묘사는 대부분 가출 이후 가난한 고학생이자 변호사, 공화당원일 때이다. 이때 등장하는 의복명칭은 프록 코트, 셔츠, 와이셔츠, 바지, 모자, 목도리, 구두이나 복식사적으로 볼 때 이 시기에는 셔츠의 명칭은 영국식이고, 와이셔츠라는 명칭은 나오기 전이므로 슈미즈로 예상되며, 명칭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슈미즈 위에 질레를 입고 프록 코트를 입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프록 코트의 색상은 “그 윗도리는 녹색이었다. 날이 어두워지면 그 윗도리는 검게 보였다. 언제나 상복을 입고 싶다고 생각한 그는 이렇게 해서 어둠을 입게 되었다”⁶⁷⁾에서 볼 때 마리우스의 프록 코트의 색은 짙은 녹색이며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다른 프록 코트는 밝은 색이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레 미제라블」의 다른 인물들의 프록 코트 색상인 밝은 푸른색⁶⁸⁾, 주황색⁶⁹⁾을 참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록 코트의 호주머니에서 물건이 떨어졌다⁷⁰⁾는 대목에서 보듯이 장식용이 아닌 실제 호주머니가 프록 코트에서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호주머니의 묘사 중에 “한쪽 주머니를 뒤

지고 나더니, 다른 한쪽을 뒤졌다. 그리고 또 바지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한쪽을 살펴보고 다른 한쪽을 훑렁 뒤집어보았다”⁷¹⁾라는 묘지 파는 인부의 묘사를 보았을 때 프록 코트의 주머니는 양쪽으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지는 삽화로 참고하였을 때 빵팔롱인 것으로 보이며, 검은색으로 묘사된다.⁷²⁾⁷³⁾ 또 앞의 설명에서 보듯이 양쪽에 주머니가 뒤집어 지는 인 포켓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레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같은 공산당원의 경우로 보았을 때 공화당원이 붉은 질레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⁴⁾

마지막으로 결혼식 예복의 착장 아이템은 모자, 푸른 저고리, 초록빛 가죽 반바지, 장화, 완장이 나타나는데 푸른 저고리는 프락으로 생각되며 가죽 반바지는 꺾로뜨로 보인다. 이는 질노르망의 삽화⁷⁵⁾를 연상하게 한다. 프락에는 붉은 선이 둘러져 있으며, 방울단추가 달린 것으로 묘사된다. 전 상황에서 삽화와 발체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모자는 창이 좁고 운두가 높은 실크 모자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9> 마리우스
(출처: 「레 미제라블3,
위털루 전쟁」, 2002, p.1143)



<그림 20> 코제뜨
(출처: 「레 미제라블4,
장발장」, 2002, p.1423)

5) 코제뜨

코제뜨는 크게 3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린 시절 페나르디에 부부에게 맡겨지기 전 부유한 아이의 모습과 페나르디에 부부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할 때 그리고 장발장의 양녀의 상황으

로 나누어진다. 장발장의 양녀의 생활은 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린이에서 기숙생, 그리고 부르주아 여인의 모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부유한 아이일 때 꼬제뜨의 직접적인 의복 묘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인 팡띤느의 설명 중 “그녀는 이미 자기의 몸에서 단연코 사치를 물리치고 무명옷을 걸쳤으며, 자기의 비단이며 리본이며 레이스는 딸을 위해 썼다”⁷⁶⁾라는 대목에서 상당히 부유한 차림새를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부유한 아이의 모습으로 떼나르디에 부부의 두 딸의 묘사에서 차용하자면 소매달린 베스트와 스커트를 입고 발랑씨엔느(Valencienne)의 레이스로 장식된 모자의 차림새⁷⁷⁾이다. 복식사적으로 보았을 때 소매달린 베스트는 질레의 한 종류로 보이며, 이 대목에서 질레를 남성뿐만 아니라 어린 여자아이도 착용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꼬제뜨의 어린 시절 부유한 이미지는 어머니의 독백으로 처리되며 털실로 짠 스커트, 하얀 베일, 비치는 긴 양말 등의 아이템을 언급한다.

떼나르디에 부부에게 맡겨져 식모살이를 하는 꼬제뜨의 의복 묘사는 “몸에 걸친 것이라고 구멍 뚫린 무명 옷 뿐, 털로 된 것은 눈을 씻고 보려 해도 없었다”⁷⁸⁾의 단 한 줄과 삽화로 보았을 때 네마주이가 된 슈미즈와 스커트입고, 모자를 쓴 모습만 식별할 수 있을 뿐 다른 사항은 알아낼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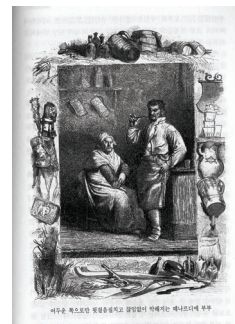
장발장의 양녀가 된 꼬제뜨의 어린 시절은 장발장의 상복으로 준비한 온통 검은색의 아이템으로 구성되었다. 두터운 비로드로 된 소매달린 짧은 윗옷, 모직 원피스, 앞치마, 무명 속옷, 메리야스로 된 속치마, 숄, 털실 긴 양말, 구두, 목도리 등의 명칭으로 나타난다. 이는 꼬제뜨를 데리러 가는 장면과 꼬제뜨가 결혼한 후 회상 장면에서 두 번 언급된다.

기숙생 시절의 간접적인 묘사를 보자면 “벨벳

모자에 메리노 원피스를 입고 학생구두에 빨갇게 드러낸 손이었던, 기숙생 같은 꼴을 한 옷차림이 아니었다”⁷⁹⁾라는 대목에서 기숙생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후에 꼬제뜨가 자신의 미모에 눈을 뜨며 사치하게 되는 부르주아 여인의 모습은 마리우스와 연애시절부터 결혼 후까지 이어진다<그림 20>. 이 무렵의 꼬제뜨는 로맨틱 스타일로 묘사되며, 하얀 베일이 비치는 모자, 연보라색 리본이 달린 크레이프 모자, 벨벳 모자, 레이스 로브, 다마스크 능직의 긴 옷, 비단 망토, 비단 케이프, 소매부리 장식, 중국 상아 파라솔, 비단으로 짠 구두 등이 등장한다. 이 무렵의 꼬제뜨의 의복 아이템에서는 유독 뱅슈(Binche) 산 레이스, 영국식 수, 제노바(Gènes)와 알랑송(Alençon) 산 레이스 등과 같이 지명과 국가 이름을 같이 표기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 시기의 여성 부르주아들이 외국산 고급 상품을 선호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생각된다.

6) 떼나르디에

떼나르디에의 상황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난다. 전형적인 악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비열한 사기꾼으로 묘사되는 떼나르디에는 여관을 운영할 때와 여관이 망한 후의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여관을 운영할 때는 보통 시민의 옷차림으로 나타난다. 다른 등



<그림 21> 떼나르디에
(출처: 「레 미제라블」,
종달새 꼬제뜨, 2002,
p.267)

장인물들과 같이 별다른 부연 없이 작업복이라는 명칭으로 묘사되었으나 그림의 삽화로 확인할 수 있다<그림 21>. 단추가 달린 것이 선 상의와 빵팔롱, 앞치마가 그 시기의 작업복임을 유추할 수 있다.

여관이 망하고 떼나르디에의 모습은 우스꽝스

럽고 어색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책에서는 크게 2가지의 모습이 묘사되었는데 첫 번째는 그 모습을 전형적인 시인의 모습이라 칭하였고⁸⁰⁾, 두 번째는 영국 상류 사회의 마부 모습이라고 표현하였다. 여기서 반대로 1800년대 초반 시인의 모습과 마부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시인의 모습은 라보엠의 주인공인 시인의 이미지⁸¹⁾와 흡사하여 신빙성을 더한다. 이 시기의 시인의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바지와 외투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 영국 상류사회 마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페나르디에는 검정 나사 윗도리, 비단 조끼, 넥타이, 캐시미어 뽕팔롱, 회중시계 등 갖출 것은 다 갖췄으나 단추가 떨어져 나갔거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 맞지 않는 사이즈 등으로 인해 비루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4. 등장인물의 의상분석

앞서 분석해 온 주요 등장인물 6명에 대한 성격 특징, 상황별의상에 대하여 의상표현에서 도출된 이미지 컨셉, 아이템, 소재, 색채, 액세서리에 대한 의상 분석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남성복식의 전체적인 아이템은 슈미즈와 상의 질레, 블루즈, 아비, 프락, 하의 뽕팔롱 혹은 켈로트, 외투로 프록 코트, 르텐고프가, 액세서리류로는 크라바뜨, 슈미즈 칼라 핀, 챙 넓은 모자, 크라운이 높은 딱딱한 모자, 앞에 좁은 챙이 있는 모자, 안경, 지팡이, 배낭 등이 등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복식의 경우, 로브, 코르셋, 스펀서 재킷, 블레로, 치마, 패티코트, 앞치마, 케이프, 망토, 목도리, 양말, 긴 양말, 어린이용 구두, 장화, 학생 구두, 형겔모자 보네, 밀짚모자, 실크 모자, 장갑 등의 아이템이 등장하였다.

출옥직후 장발장은 때 묻은 흰색 무명 슈미즈와 바렌 회색 블루즈를 입고 형클어진 크라바뜨를

목에 아무렇게나 두른 매우 허름한 이미지 컨셉이다. 시장으로서 장발장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친절하며 온화한 성품을 가졌으며 검소한 생활을 하였다. 당시 전형적인 남성복의 유형인 슈미즈, 질레, 뽕팔롱을 입고 외투로 프록 코트를 입었으며 목에는 크라바뜨를 둘렀다. 시장으로서 깔끔한 차림새가 나타나도록 검정 질레의 단추는 모두 단정하게 여미어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연령대를 고려하여 타이트하지 않고 약간의 여유가 있는 실루엣이다. 무명 슈미즈와 저렴한 모직물의 갈색 프록 코트가 구겨지거나 해지지 않은 깔끔한 모습이다. 도망자였을 당시에는 기본 아이টে에 변화 없이 뽕팔롱 대신 흰 켈로트를 입은 단정하지만 허름한 이미지였고, 르블랑 노인의 상황에서는 모든 기본 아이টে를 깔끔하고 부유하게 갖추어 입었다.

광편느의 처녀 시절은 엠파이어 스타일 로브와 스펀서 재킷에 밀짚모자와 적갈색 구두를 신은 매우 아름답고 청초한 모습이었다. 여직공 당시 기본적으로 흰 무명으로 만든 로브와 코르셋을 겹옷처럼 입었으며,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여성이므로 활동이 편하도록 로브의 길이는 발에 신은 양말이 보이는 길이이며 여기저기 해져있다.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만 힘들고 지친 광편느를 표현하기 위해 로브의 색상은 어두운 회색이다. 야하게 치장한 매춘부의 상황에서는 코르셋과 패티코트를 연회복 사이로 보이게 입어 정숙하지 못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자베르는 당시 일반적인 남성복의 유형인 슈미즈, 질레, 뽕팔롱을 입고 긴 르텐고프를 입었다. 딱딱하고 차가운 공직자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슈미즈의 칼라를 뽕뽕하고 높이 세우고 차가운 색상인 남색의 크라바뜨를 흐트러짐 없이 묶었다. 운두가 높은 둥근 차양의 모자를 쓰고 르텐고프의 단추를 턱 밑까지 채워 단정한 모습이다.

부르주아 마리우스는 남성복의 기본유형을 착용하지만 장발장이나 자베르와는 다르게 젊고 화

〈표 4〉 등장인물의 이미지 컨셉 및 의상분석 결과표

인물 및 성격	상황	이미지 컨셉	의상분석				
			아이템	색상	소재	액세서리	
장발장 인정 많음, 친절함, 선량함, 검소함, 침착함	출옥직후 부랑자	허름함	슈미즈	매 문은 흰색	무명	크라바뜨, 까스켓뜨, 지팡이	
			블루즈	바랜 회색	무명		
	검소한 부르주아 마들렌느	검소하고 깔끔함	슈미즈	흰색	무명, 나사	크라바뜨, 챙 넓은 모자	
			질레	검정색			
			팽팔롱				
	도망자	단정하지만 허름함	프록 코트	갈색	값싼 모직	운두가 높은 둥근 모자, 크라바뜨	
			슈미즈	주황색	두툼한 나사		
			질레				
			펠로뜨	검정색			
	르블랑 노인	깔끔하고 부유한 느낌	프록 코트	누런색		챙 넓은 모자, 검은 크라바뜨	
			르탱고뜨	주황색	두툼한 나사		
			슈미즈	흰색			
			질레				
	팡띤느 예민함, 양전함, 모성애가 강함, 강인한 용기	아름다운 젊은 처녀	엠포이어 스타일, 청초하고 아름다움	로브	연보라색	비단	밀짚모자, 적갈색 구두
스펜서					머슬린		
여직공		치량하고 허름함	로브	회색	얇은 무명	보네	
			코르셋		무명		
매춘부		아하게 치장함	로브 드 발	밝은 색	비단	머리장식	
			코르셋				
자베르 청빈함, 정직함, 냉정함		경감	딱딱하고 엄격함	페티코트			크라바뜨, 챙 넓은 모자, 지팡이
				슈미즈			
	질레						
마리우스 고상함, 신중함, 진실함, 온화함, 친절함, 자신만만함, 정열적임, 용감함	부르주아	화려하고 멋스러움	팽팔롱			크라바뜨, 장갑	
			르탱고뜨	검정색			
			슈미즈				
	가난한 변호사 (공화당원)	가난하고 허름함	슈미즈			헤진 모자, 크라바뜨	
			질레	붉은 색			
			팽팔롱	검정색			
			프록 코트	짙은 녹색			
	부르주아 (결혼예복)	결혼 예복 으로 단정하지만 화려함	르탱고뜨			장화, 완장, 챙이 좁은 실크 모자	
			슈미즈	푸른색			
			질레	붉은 색			
			펠로뜨	녹색	가족		
	포제프 수줍음을 잘 탐, 친진난만함, 어른 같은 어린애, 솔직함, 투명함, 깨끗함, 대담함, 용감함	부유한 어린이	부유한 차림새	슈미즈			하얀 베일, 비치는 양말
로브					모직		
식모살이		누더기	질레			모자	
			슈미즈		무명		
장발장 양녀		검소함	스커트		무명	목도리, 양말, 구두	
			볼레로	검정색	비로드		
			로브	검정색			
			앞치마				
기숙생		단정한 모습	속치마		메리야스	벨벳 모자, 학생구두	
			로브 드 메리노스		메리노 모직		
부르주아 처녀		로맨틱 시대 스타일, 화려하고 사치스러움	로브		능직 다마스크	벨벳 모자, 레이스 장식, 소매 장식, 상아 파라솔, 비단 구두	
			망토		비단		
	케이프			비단			

〈표 4〉 계속

인물 및 성격	상황	이미지 컨셉	의상분석			
			아이템	색상	소재	액세서리
페르나디에 교활함, 위선적임, 탐욕스러움, 음탕함, 간계에 능함, 악당치고는 온순함	여관주인	보통 시민의 옷차림	블루즈			앞치마
			빵팔롱			
	강도 (전형적인 시인의 모습)	우스꽝스럽고 어색함	여성용 슈미즈			
			빵팔롱			
			르탱고뜨	누런색		
	사기꾼 (영국 상류사회 마부의 모습)	사이즈가 맞지 않고 비루함	슈미즈			모자, 안경, 크라바뜨, 회중시계
			질레		비단	
			빵팔롱		캐시미어	
			프록 코트	검정색	나사	

려하며 멋스러운 분위기이다. 공화당원으로 지내는 시절의 모직나사로 만든 짙은 녹색의 프록 코트는 전체적으로 몸에 피트되며, 공화당원의 붉은 질레를 입고 검정색 빵팔롱을 입었다. 무명으로 만든 슈미즈의 칼라는 높게 세워져 있고 밝은 색의 크라바뜨를 정갈하게 묶어 자신감 넘치고 세련된 로맨틱 시대의 젊은 남성의 모습이다. 결혼 당시의 예복은 단정하지만 화려하고 푸른색 슈미즈, 녹색 가죽 쥘로뜨, 붉은 선과 방울로 둘러진 프락, 쉐이 좁은 실크모자 등은 전통의상의 분위기를 내기에 충분했다.

부유한 차림새의 어린 시절에 비해 식모살이 어린 시절의 꼬제뜨는 누더기 차림새로 극하게 대조되는 이미지를 보인다. 장발장의 양녀가 된 이후에도 검정색 아이템을 입은 검소한 모습을 유지했고, 기숙생 당시도 단정한 모습이다. 그러다 마리우스와 연애를 하는 시절의 꼬제뜨는 외모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신을 꾸미는데 로맨틱 시대를 대표하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젊은 여성의 이미지 컨셉으로, 분홍빛이 도는 파스텔 톤에 작은 꽃무늬가 전체적으로 새겨있는 로브를 입고 있다. 스커트의 부피는 크며 스커트 단에는 작은 리본이 주름을 잡았으며, 네크라인은 넓어서 꼬제뜨의 어깨가 드러나고 당시의 유행에 따라 소매가 부풀려 있다. 노출된 어깨를 실크 레이스로 만든 케이프로 가리고 쉐이 넓은 모자를 쓰고 모자에는 리본이 달려 있어 로맨틱한 분위기를 내고 있다.

블루즈와 빵팔롱을 입은 보통시민의 옷차림을 한 여관주인 페르나디에의 모습은, 강도 시절 갖추어 입지 않고 자신의 사이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어 우스꽝스럽고 어색한 이미지이다. 슈미즈의 단추는 풀어 헤쳐 가슴이 훤히 보이지만 크라바뜨는 대충 목에 둘러져 있고 베스트를 입었다. 그에게 맞지 않는 르탱고뜨를 걸쳐 입어 당시 지식인층의 의복을 따라 입으려 하였지만 그럴 수 없는 분위기가 났다. 또 사기꾼으로 등장할 때는 기본 아이템을 다 갖추고 안경과 회중시계를 차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비루하고 억지스러운 이미지이다.

V. 결 론

「레 미제라블」은 1815년~1832년 프랑스를 배경으로 장발장이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전 6권으로 구성하고 있는 장편소설이다. 「레 미제라블」에 나타난 의상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설의 시대 및 복식배경에 대한 사적고찰 결과, 프랑스의 혁명 이후 왕정과 공화정이 번복되는 정치적 혼돈과 경제적으로 극한 빈곤을 겪었던 힘들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복식사적으로 신고전주의에 영향을 받은 심플한 엔파이어 스타일에서 낭만주의가 팽배했던 로맨틱 스타일 시대로 이전되는 시기로 사치스럽고 화려

함을 되찾으려 하였다. 여성복식의 기본적인 유형은 로브, 벨르린느, 르덴고뜨 등이었는데, 로브는 넥크라인을 넓히고 소매를 부풀려 어깨를 넓게 강조하고 허리를 잘록하게 조였으며 스커트는 풍성하게 부풀려 X자형 실루엣을 형성하였다. 남성 복식은 단정하며 세련된 현대의 남성복과 비슷한 형태로 발전하였는데, 상의는 슈미즈, 질레, 블루즈, 베스트, 프락, 프록 코트, 하의로는 쥘로뜨, 빵팔롱, 외투류는 까프, 르덴고뜨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발췌문 180부분의 분석을 통해 주요 등장인물 6인의 연령, 성별 및 사회·문화적인 배경, 성격 특징과 각 인물의 상황별 의상표현이 파악되었다. 당대복식의 기본 아이템들을 착용한 장발장은 상황에 따라 허름한 출옥직후 부랑자, 검소하고 깔끔한 시장, 허름하지만 단정한 도망자, 부유한 차림새의 르블랑 노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엄격하고 청빈한 경감 자베르는 챙 넓은 모자를 꼭 눌러 쓰고 두 손이 가려질 만큼 긴 소매의 르덴고뜨를 입고 지팡이를 속에 감추고 무언가 탐색하는 모습이다. 청초하고 아름다운 젊은 처녀, 처량하고 허름한 여직공, 매춘부로 등장하는 팡띤느는 예민하고 얌전하지만 모성애가 강한 용기 있는 여성의 모습이다. 마리우스는 젊고 정열적이며 자신만만한 부르주아 이미지로, 남성착장 아이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가난한 변호사 공화당원 시절에는 헤어진 모자, 팔꿈치가 떨어진 슈미즈, 무릎이 닳아 허영게 된 검은 빵팔롱, 물이 들어오는 구두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부유한 어린이, 식모살이 시절, 장발장의 양녀, 기숙생, 부르주아 처녀로 모습에 변화가 많은 꼬제뜨는 수줍음을 잘 타지만 사랑에는 대담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다. 부르주아 처녀의 모습으로 등장할 당시는 고급스런 소재를 사용한 다양한 로브, 망토, 모자를 착용하여 로맨틱 시대의 스타일로 한껏 멋을 낸 모습이다. 교활하고 탐욕스런 페나르디에는 보통시민의 옷차림을 한 여관주인 시절을 제외하고는 구색

이 맞지 않는 우스꽝스럽고 어색한 차림의 강도, 사기꾼으로 등장한다.

셋째, 등장인물의 이미지 컨셉 및 의상 분석 및 종합 결과, 소설의 세밀한 의상표현을 통해 시대 기본 유형을 따르고 있지만 상황에 따른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복식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당시의 대표적인 의상인 슈미즈, 질레, 작업복 윗옷 블루즈, 프락, 빵팔롱, 쥘로뜨, 프록 코트, 르덴고뜨와 크라바뜨, 슈미즈 칼라 핀, 챙 넓은 모자, 크라운이 높은 딱딱한 모자, 까스켓뜨, 안경, 지팡이, 배낭 등의 액세서리가 남성복 아이템으로, 로브, 스펜서 재킷, 치마, 케이프 형 망토, 목도리, 양말, 어린이용 구두, 장화, 학생 구두, 형겔 모자 보네, 밀짚모자, 실크 모자, 장갑, 앞치마 등이 여성복 아이템으로 등장하였다. 부르주아 처녀로 묘사된 꼬제뜨의 고급스럽고 밝은 의상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어두운 색상의 소박하거나 낡은 소재가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글 고증 자료에 대한 연구모델은 인문사회 기초자료 구축과 지식토대 마련에 기여할 것이며, 원작의 분석결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베이스는 고전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한 공연의상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단일자료의 연구 제한점을 벗어나 다중자료 간 비교를 통한 연구의 범위가 확대된 발전적인 후속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1) General Information. Les misérable Official Website, 자료검색일 2010. 12. 15. <http://www.lesmis.com>
- 2) Hugo, V. (1865-a). 레미제라블1. 중달새 꼬제뜨, 송면 옮김 (2002). 서울: 동서문화사, pp.12-424.
- 3) Hugo, V. (1865-b). 레미제라블2. 팡띤느의 슬픔, 송면 옮김 (2002). 서울: 동서문화사, pp.425-840.
- 4) Hugo, V. (1865-c). 레미제라블3. 위터루 전쟁, 송면 옮김 (2002). 서울: 동서문화사, pp.841-1256.

- 5) Hugo, V. (1865-d). 레미제라블4. 장발장, 송면 옮김 (2002). 서울: 동서문화사, pp.1257-1672.
- 6) Hugo, V. (1865-e). 레미제라블5. 혁명 바리케이드 도둑, 송면 옮김 (2002). 서울: 동서문화사, pp.1673-2080.
- 7) Hugo, V. (1865-f). 레미제라블6. 사랑 죽음 영혼, 송면 옮김 (2002). 서울: 동서문화사, pp.2081-2305.
- 8) Hugo, V. (1890). Les misérables1. Fantine, Paris: Emile Testard et cie, pp.1-543.
- 9) Hugo, V. (1890). Les misérables2. Cozette, Paris: Emile Testard et cie, pp.1-495.
- 10) Hugo, V. (1890). Les misérables3. Marius, Paris: Emile Testard et cie, pp.1-443.
- 11) Hugo, V. (1890). Les misérables4. L'Idylle rue Plumet et l'épopée rue Saint-Denis, Paris: Emile Testard et cie, pp.1-600.
- 12) Hugo, V. (1890). Les misérables5. Jean Valjean, Paris: Emile Testard et cie, pp.1-516.
- 13) 김경근 (1998). 프랑스 근대사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225-227.
- 14) 위의 책, p.213.
- 15) Carpentier, J. (1987). 프랑스 인의 역사, 주명철 옮김 (1991). 서울: 소나무, pp.167-169.
- 16) 임원자, 백영자 (2002). 서양복식,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pp.255-256.
- 17) Waugh, N. (1994). The Cut of Women's Clothes, London: Faber and Faber Limited, p.149.
- 18) 위의 책, p.150.
- 19) 고애란 (2008). 서양의 복식 문화와 역사, 서울: 교문사, p.287.
- 20) 위의 책, p.286.
- 21) Payne, B. (1965). 복식의 역사, 이종남 외 옮김 (1988). 서울: 까치, p.576.
- 22) 위의 책, p.563.
- 23) 고애란. 앞의 책, p.288.
- 24) Waugh, N. (1964). The Cut of Men's Clothes, London: Faber and Faber Limited, pp.118-119.
- 25) Chenoune, F. (1993). Des Modes Et Des Hommes, Paris: Flammarion, p.38.
- 26) 위의 책, p.47.
- 27) Vernet, H. (1818). Costume et Modes d'autrefois. Incroyables et Merveilleuses, Paris: éd. Rombaldi, p.5.
- 28) Boucher, F. (1983). Histoire Du Costume, Paris: Flammarion, p.449.
- 29) Chenoune, F. 앞의 책, p.28.
- 30) Leloir, M. (1951). Dictionnaire du Costume, Paris: Librairie Grund, p.31.
- 31) 위의 책, p.382.
- 32) Payne, B. 앞의 책, p.513.
- 33) 고애란. 앞의 책, p.305.
- 34) General Information, 앞의 인터넷 자료.
- 35) Mackintosh, C. (producer) (2008). Les Misérables 10th Anniversary Concert at London's Royal Albert Hall [DVD], London: Cameron Mackintosh (Overseas) Ltd.
- 36) August, B. (director) (1998). Les Misérables [DVD], California: Sony Pictures.
- 37) 위의 DVD 자료.
- 38) 위의 DVD 자료.
- 39) 박중서 (2010. 5. 26). 강력한 휴머니즘을 발산한 낭만주의 문학의 거장 빅토르 마리 위고. 네이버캐스트 인물세계사, 자료검색일 2010. 11. 15. <http://navercast.naver.com/peoplehistory/foreign/2738>
- 40) Hugo, V. (1865-a). 앞의 책, p.284.
- 41) 위의 책, p.290.
- 42) 위의 책, p.345.
- 43) Hugo, V. (1865-c). 앞의 책, p.1106.
- 44) Hugo, V. (1865-d). 앞의 책, p.1416.
- 45) Hugo, V. (1865-b). 앞의 책, p.611.
- 46) Hugo, V. (1865-a). 앞의 책, p.107.
- 47) 위의 책, p.174.
- 48) Hugo, V. (1865-b). 앞의 책, p.477.
- 49) Hugo, V. (1865-a). 앞의 책, p.281.
- 50) Hugo, V. (1865-b). 앞의 책, p.630.
- 51) 위의 책, p.647.
- 52) 위의 책, p.643.
- 53) 위의 책, p.740.
- 54) Hugo, V. (1865-c). 앞의 책, p.1135.
- 55) 위의 책, p.1222.
- 56) Hugo, V. (1865-a). 앞의 책, p.1410.
- 57) Hugo, V. (1865-a). 앞의 책, p.219.
- 58) 위의 책, p.317.
- 59) 위의 책, p.259.
- 60) 위의 책, p.317.
- 61) 위의 책, p.321.
- 62) 위의 책, p.321.
- 63) 위의 책, p.331.
- 64) 위의 책, p.294.
- 65) Hugo, V. (1865-c). 앞의 책, p.1044.
- 66) Hugo, V. (1865-a). 앞의 책, p.321.
- 67) Hugo, V. (1865-c). 앞의 책, p.1101.
- 68) 위의 책, p.1135.
- 69) Hugo, V. (1865-b). 앞의 책, p.630.
- 70) Hugo, V. (1865-c). 앞의 책, p.1040.
- 71) 위의 책, p.898.
- 72) 위의 책, p.1036.
- 73) 위의 책, p.1106.
- 74) Hugo, V. (1865-e). 앞의 책, p.1719.
- 75) Hugo, V. (1865-f). 앞의 책, p.2017.
- 76) Hugo, V. (1865-a). 앞의 책, p.259.
- 77) 위의 책, p.256.
- 78) Hugo, V. (1865-b). 앞의 책, p.645.
- 79) Hugo, V. (1865-c). 앞의 책, p.1139.
- 80) Hugo, V. (1865-d). 앞의 책, p.1259.
- 81) 최유진, 김희은 (2010). 오페라 라보엠의 무대 의상 연구: 보엠의 스타일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 34(7), p.1069.

A Study of Costumes in the Novel, 「Les Misérables」

Kim, Hyun Joo^{*} · Han, Jee Eun^{**} · Hwang, Na Won^{**} · Zhao, Liang^{*} · Kim, Yang Hee⁺

Master's course, Dept. of Fashion Clothing & Textiles, Inha University^{*}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Clothing & Textiles, Inha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Abstract

The novel titled 「Les Misérables」 is a work in which people have great interest, and is an interesting research theme. Nevertheless, there is a lack of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on the topic, creating a demand for related research.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the original novel based on historical consideration of the period and costume background, instead of following preceding analytical methods that focused on materials such as stage costumes in musicals or films. It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racters as expressed in 「Les Misérables」, and the costume descriptions.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study is significant for it will help with development of performance costume and provide materials of historical research. The analysis was based on 180 excerpts from six 6 volumes of 「Les Misérables」. Around 150 different episodes in the book were referred. First, historical consideration of period and costume background increases understanding of the novel. Second, understanding of the entire construction and plot of the novel is gained through the stage of excavating and analyzing materials, which includes extracting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and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the main characters. Also, this method examines the general costume style and mood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the costume expression of the main characters according to situation. Third, in the stage of analyzing and synthesizing, the costume image concepts of the main characters are clarified through analysis of costume according to situation. By analyzing 180 different excerpts, the age and gender of the main characters,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each situation-based costume expression of each character were examined. As a result of analyzing and synthesizing image concept and costume of the characters, the detailed costume expressions in the novel were found to include diverse costumes according to gender, age, class and situation, even if not necessarily following the basic style of the period.

Key words: Les Misérable, Jean Valjean, Cosette, stage costume, romanticism